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70년대 서강대 학생운동과 긴조9호



공동 집필

김선택
부좌현

서강대 경제학과 74학번 <민주화의 길> 편집위원,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정책실차장, 전국민족민중운동연합 사무차장, 하이팩스 대표이사(현)
서강대 철학과 77학번, 해미류종합법률상담소 상담실장 제5대 경기도의원(안산4), 열린우리당 천장배원내대표 비서실장,
(사)경기서부지역혁신연구원 상임이사(현)

대학생활에 대한 꿈과 실망

74년 당시 누구나 그랬듯이 제도적인 틀 속에서 벗어나 한껏 꿈을 안고 대학에 들어갔다. 젊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해보고 싶은 일도 많았고, 미팅도 마음대로 해볼 수 있겠구나 했다.

이런 들뜬 마음도 잠시, 대학에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누가 잡혀갔고, 누가 수배 중이라는 얘기가 뜬소문처럼 돌아다니면서 학내 분위가 뒤숭숭함을 알게 되었다. 무슨 일이 있는지 학교 정문에는 사복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때만 해도 학생운동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을 때였다. 그렇지만 학교 내에서 형사들을 보니 기분은 좋지 않았다. 서강대는 캠퍼스도 좋아서 짬새(사복 경찰에 대한 속어)들이 교내를 배회하는 것이 눈에 잘 띄었다. 그러니 학교 내에서는 자유로운 대화가 불가능했다. 짬새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엿듣고 다녔고, 학생이 좀 많이 모였다 하면 주위를 맴돌며 기웃거리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기분을 잡치기 일쑤다. 대학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아누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에서 대학에 가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소박한 꿈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자연히 별로 학교에 다니기 싫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골방에서 술자리를 많이 가졌다. 그것도 학교 근방에서가 아니라 가능하면 학교에서 멀리 떨어. 그리고 새내기라서 같은 대학 친구들보다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어울려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말이다. 그러다보니 더욱더 학교에 잘 다니지 않았다. 좁은 캠퍼스가 싫기도 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휴학해버렸다. 방향도 많이 했다.

짧은 신학기 기간이었지만 서강대에 들어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학도서관이 개가식 이어서 마음대로 책을 접할 수 있었고, 비교적 자료가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도 수업은 자주 빼먹고 도서관에 들어박혀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구경하고 뒤지는 짓을 많이 했다.

그러다 좀 쉬은 것은 읽기도 하면서 지내다가 몇몇 친구들과 어울려 술집에 가서 술을 먹으며 그날 보았던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다. 이때 흔히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사회과학과 사회철학에 대한 기본 도서를 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과학사전도 보게 되었다.

선배들과의 만남과 학교 밖에서의 사회과학공부

75년 봄 우연히 김택춘(신방과) 선배를 만나게 되었다. 그 당시 교지편집장이었다가 필화 사건으로 구속되어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고생하다가 풀려 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기억한다. 현재는 서울 노원구 햇빛교회에서 감리교 목사가 되어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 그 선배를 통해 민청학련사건에 대해 그리고 서강대의 학생운동의 현황에 대해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얼마 뒤 이미 제적된 경제학과 70학번 허성삼(현 사업) 선배의 집에도 가서 70년대 초반 이후 이제까지 서강대에서 일어났던 학생운동에 대해서도 몇 번에 걸쳐 들을 수 있었다. 그때의 분위기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 허성삼 선배의 집은 부유한 편이라서 그 집에서 모임을 갖기가 좋았다. 그래서 민청학련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서강대 선배들이 그 선배의 집을 아지트 삼아 학습과 토론을 주로 했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도서관에서 책을 뒤지다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제적된 사학과

허운홍 선배도 만났다. 비슷한 책을 찾고 있어서 얘기가 되었다. 특히 허운홍 선배와는 역사 철학과 경제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때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무엇을 해야만 하나? 어떻게 해야만 하나? 그 전엔 개인의 죽음과 삶을 비롯해 자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서강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 많은 고민을 했다.

해결책을 쉽게 찾지 못했다. 그래서 자연히 도서관에 틀어 박혀 책이나 자료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었다. 차라리 책이나 자료를 볼 수 있는 도서관에서 혼자서 시간 보내는 것이 마음 편했다. 이러면서 그 당시 진보적 인사로 알려진 사람들의 저서를 많이 보았다.

얼마 뒤 처음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책도 보게 되었다. 원전보다는 대다수 해석서였으나 간혹 원전도 구해서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책이나 자료가 영어나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일본어 독해를 일찍이 배우기도 했다(형제교회 농촌문제 세미나모임에서). 지금과 달리 변혁 운동에 대한 책이나 자료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거의 없었고 쉽게 구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일어로 된 책이나 자료는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학생운동을 하는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유행처럼 일어를 공부했고 일어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해석보다는 변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왼손에 지구본을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세상을 다 해부하겠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호언을 담은 삽화는 대단한 충격이었다. 이러한 신선한 충격은 그 뒤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탐닉하게 했다. 이러한 기억은 지금도 선하게 떠오른다.

이때쯤 김택춘 선배의 소개로 교회의 공간을 빌려서 활성화되고 있었던 세미나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알게 된 선배의 소개로 형제교회에서 농촌문제 세미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모임에서 경제사와 농촌문제 전반에 대해 공부했지만 그 외에도 사회과학 일반, 역사철학, 제3세계의 교육학, 농업경제학, 정치경제학 등에 대해 선배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대한 공부도 별도로 했다. 이때 여러 선배와 친구·후배들을 만났다. 농촌 활동도 갔고, 공장활동도 갔다. 판잣집에서 자취하며 공장에 다니는 ‘공돌이’(당시 공장 노동자를 부르던 속어)의 실상을 보고 사회의 구체적 현실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 또 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생의 과제로 갖게 되었다.

젊음의 정의감에서 느끼는 분노가 이제는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보다 사회화된 분노로 전환된 것이라 하겠다. 감성적 분노에서 의식화된 분노로 아니 이성적 분노로 전환되었다고나 할까? 아마도 의식있는 대다수 젊은이들이 사회의 이러한 어두운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분노를 마음 속 깊이 각인시키고 이후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민주화운동 나아가 변혁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동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강대 학생운동의 현황과 학내 역량강화를 위한 모임의 활성화

서강대 학생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서강대의 설립과정과 규모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서강대의 설립년도가 1960년이었기에 서강대 출신의 대학생들은 4.19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어서 일어나는 한일회담 반대시위 등에도 그리고 위수령이 발동되던 시기에도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서강대 학생운동의 전통은 일천할 수밖에 없다. 전통의 부재는 뒤를 잇는 후배들에게 새로운 전통을 세우기 위해 몇 십 배의 노력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만큼 어려움도 크다. 그래서 70년대에 이르러서야 나름대로 학생운동의 맥과 전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서강대학교의 교육이념은 가톨릭 신앙과 예수회 교육이념을 토대로 하여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과 믿음을 갖춘 전인교육을 지향한다”는 보편적 교육 이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예수회 재단이 중심이 됨으로써 미국식 대학교육을 토대로 한 교과과정을 서강대에 적용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전반이 미국사회를 전형으로 한 양심적 소시민 즉 소시민적 자유주의자를 양성하는 쪽으로 편향되기 쉬웠다.

물론 현실에 순응하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회가 왜곡되어 있다면 이러한 왜곡을 바로 잡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최고의 지성을 쌓는 대학은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의 당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실천에 옮기는 지식인을 길러내는 데도 심혈

을 기울여야만 한다.

당시 한반도의 현실은 상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독점자본주의 군사파쇼집단이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을 소시민적 자유주자로서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교육시키기만 한다면 우리 현실과 교육은 내용상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소시민적 자유주의자로서 결국은 현재의 체제에 순응하도록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유능한 서강인이라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실천하는 데에는 일정한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전통의 부재와 서강인이 겪는 자기 모순적 갈등은 서강대 학생운동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질곡으로 작용했다. 이의 극복은 정말 학생운동을 옥죄는 외적 변수 이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요한 내적변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었다. 학생운동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던 모임 등은 와해되었고, 긴조9호로 학교는 마포서의 앞마당이 되었고, 학생수는 적어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금방 노출되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학생운동을 복원하고, 나아가 변혁운동으로까지 발전이 가능할 수 있나? 그 당시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지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선배는 김택춘 선배였다. 물론 실질적으로 운동을 같이 해본 적은 없지만 가끔씩 만나 어려운 문제를 상의하면서 나름대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당면한 과제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했다. 그것은 역량강화였다.

77년 11월에 서강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다. 물론 시기적으로 서울대에서 불붙은 학생대중투쟁이 다른 대학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대학 등에서 시위가 한창 일어났던 때였다. 그러므로 서강대에서도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되었다. 이런 때에 내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과는 별도로 공개 동아리 중심으로 준비된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75학번들로서 가톨릭 학생회의 화학과 이순범과 경영학과 박태울 그리고 혜명빈(불교학생회)의 물리학과 이효율이 중심이 되어 75년 이후 최초로 조직적인 시위를 성공시켰다. 서강대에서 최초로 긴조9호시대에 계획된 시위였다. 그만큼 서강대 학생은

동역사에서 의미가 큰 시위였다.

이후 10여 일 사이에 두 번에 걸친 시위가 더 일어났다. 이것은 서강대 내부에서도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하는 학생시위를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먼저 있었던 시위로 고양된 분위기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교련시간에 일어난 시위였다. 이때 철학과 73학번 유재현 선배(현 소나무출판사 운영)와 이공대 75학번 신선근 등이 유신독재에 반대를 외치고 시위를 벌이다 감옥으로 잡혀갔다.

그리고 며칠 후 벌써부터 준비해온 황토모임이 조직적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사학과 장정수와 한승동, 물리학과 75학번 임영준, 국문과 76학번 김용진 등이 주도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감옥행을 각오하고 시위를 계획한 주동자들 이외의 사람들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달비 엮듯이’ 경찰 조사를 받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이는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우리가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모임을 구성하면서 모임의 이름을 짓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나는 이미 대학연합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관계한 모임은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될 수 있었다. 그러한 측면도 있었지만 당시 정보기관의 감시가 심했던 객관적 상황이나 학생 수가 적고 캠퍼스의 공간이 좁은 서강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개적인 동아리에 관여하는 후배들도 있었기에 별도로 모임의 이름을 지어서 또 다른 울타리를 공식적으로 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단점도 있었다. 모임의 이름이 있으면 형식이 내용을 규제하여 통일성과 귀속성을 강화할 수 있고, 동시에 단결력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뒤에 자체적으로 모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장기적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름을 갖지 않은 모임이었으므로 근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모임을 같이 했던 사람들끼리 다 모이기도 대단히 어렵다. 게다가 역사를 이어가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만큼 이름이 갖는 끈끈한 유대감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더욱더 중요하게 된다.

서강대에서 70년대 긴조9호에 대해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사람은 다른 아닌 고 김의기 열사다. 그는 이 당시 농촌으로의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주민중항쟁을 목격했다. 이후 서울에 올라와 광주에서 국민의 군대에 의해 자행되었던 동족살인의 진상을

알리고 이런 만행을 저지른 소수 군사피소독재자를 처단하기 위해 우리 모두 쫓기할 것을 추동하기 위해 나섰다. 계엄군에 죽임을 당했다.

80년 5월 30일, 당시 계엄 하에서 광주에 실상을 알린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열사는 나선 것이다.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정례적으로 열리는 금요기도회를 이용하여 “동포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외치고자 했다. 정말 피맺힌 절규였다. 그러나 사전에 탐지하고 기독교회관 6층을 덮친 계엄군과 맞서 반항하다가 자신이 작성한 유인물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창 밖으로 뿌리기도 하다 밀리면서 높이가 20미터나 되는 창문에서 추락사했다고 한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와 달리 의문점이 많다. 사전에 탐지되고 이후 혼자서 유인물을 작성하여 뿌리려고 했던 과정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상 외적 강제가 없이 실족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스스로 밧을 헛디뎠다기보다 계엄군에 의해 강제로 밀려났거나 저항하다 폭력에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 의기 열사는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동족살인을 알리다 최초로 피를 뿌린 서장인이다. 장례식은 80년 6월 2일에 치러졌다.

이 사건으로 나는 매우 큰 짐을 지게 되었다. 스스로의 자학일지도 모른다. 1978년 10월 28일의 시위계획은 일정하게 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김의기 열사가 시위를 주도하지 않고 바로 농촌으로 이전했다면 그렇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두고두고 이 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의 추모행사를 오늘에까지 연결하기 위해 무던히도 고생했다. 특히 79년 10월 28일에 시위계획을 같이 했던 박환무(현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와 이영수 선배, 유재현 선배 그리고 경제학과 모임의 후배들, 이경숙 후배와 76학번 여자 후배들이 초창기에는 고생을 많이 했다. 1984년 이후로는 77학번부터 매년 1학번씩 내려가면서 추모제를 준비하기로 했고, 추모행사는 5월 마지막 일요일에 갖기로 했다(이런 방식이 전통이 되어 지금도 추모행사는 한 학번씩 내려가 그들이 상주가 되고 있다). 이때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고 김의기 열사의 묘가 있었던 금촌의 기독교공원묘지에 모이는 것 자체가 감시 대상이었다. 이후 92년 광주민중항쟁 유공자로 인정되어 금촌 기독교공원묘지에서 지금은 광주 망월동 묘역에 이장되어 있다. 이때 나는 수배 중이라서 참여하지 못했고, 가족과 형제교회 관계자들 그리고 유재현 선배와 후배들이 같이 했다. 나로서

는 큰 짐의 일부를 벗은 셈이 되겠다.

이런 활동의 연장선 상에서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1983년 이후 서강민주동우회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재현 선배의 역할이 매우 컸다.

대학연합모임의 발각과 감옥생활

76년 12월 초 서울 법대에서 긴조9호 하의 오랜 침묵을 깨고 대단위 학생대중 시위가 일어났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사건이었다. 긴급조치9호는 당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안정화를 위해 대학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학 내부에 대한 사찰을 공개적으로 강화하여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차단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단위 학생대중이 시위를 성공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단위 학생시위가 성공함에 따라 자연히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강력한 억압이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한 고리가 생기게 마련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한 것이다.

대학 내부를 아무리 군사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철통같이 틀어막는다 해도 진리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한창인 젊은이의 마음 모두를 짓밟을 수는 없었다. 억압이 강하면 강할 수록 그에 대한 반발도 강한 법이다. 정의가 살아 있는 한에서는 말이다. 그래서 억압의 감시망 아래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 내에서 정의가 짓밟히는 것에 대한 분노는 광범해졌다. 동시에 사회과학 공부를 통해 의식화된 활동가들이 양적으로 많아지면서 자연히 독재정권의 억압을 깨야만 한다는 욕구가 높아졌다. 또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원인의 분석과 더불어 그 당시의 역량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하게 되었다. 그런 분석을 통해 자연히 대학간 연합시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긴급조치9호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보다 광범하게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조직하는 것이 어떤 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교회의 농업문제 공부하던 모임에서도 자연히 그런 얘기들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77년 초에 당시 농업문제 공부모임의 주도적인 회원이었던 성균관대 장준영 선배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다. 아마도 장 선배는 이런 제의를 먼저 받고 있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런 것에 대해 서로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기 때문이다. 내용을 알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뒷날 6개교 연합이라는 대학간 연합시위조직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형성되게 되었다. 서울공대 김부섭은 77년 초부터 78년 초까지 연합시위를 같이 논의하다 그해 4월 서울공대 내에서 시위를 주도한 관계로 수배를 받아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와 장준영 선배, 고려대 정경연, 서울농대 강구용, 서울대 백삼철, 서울여대 권명자 등이 공범이 되었다. 그런데 6개교 연합조직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77년 초부터 우리가 감옥에 가는 78년 10월까지로 상당히 길었다. 그 기간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지긋지긋한 기간이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몸으로 익혔다. 운동의 자세부터 같이 할 활동기를 모으는 방법, 보안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수칙 등 실천 면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익혔다.

이로 인해 처음으로 감옥에 갔고, 이때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다. 10월 10일 밤 12시가 다 되어 미아리 집에서 연행되어 마포서로 간 것으로 기억한다. 연행되던 다음날 새벽까지도 마포서에서는 내가 무엇때문에 잡혀왔는지 감을 잡지 못했다. 그래서 잡혀간 날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 조사도 받지 않았다. 잡아간 형사와 바둑만 두었다. 아침에 시경에 확인하여 별일 없으면 내보내주겠다고 했다.

10시가 지나자 시경에서 전화를 받고 정보과장이 불러 할 얘기 없냐고 하면서 다른 데로 가면 더 고생할 테니 여기서 조사받고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내 자신은 대략 감은 잡고 있었지만 시간을 버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해서 내가 왜 연행되었는지 모른다고 말하자 그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곧 바로 관악서로 이송하였다. 관악서 정보과 사무실 뒤편으로 화장실을 거쳐 조그만 방으로 들어갔다. 시멘트 바닥에 접는 의자 하나, 창문은 조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손 하나 나갈 만큼 좁고 긴 문이 있는 방이었다. 연행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방인 것으로 예상된다. 약 1주일 간 잠을 재우지 않고 여러 가지를 조사 받았다. 미수 사건에다 누가 잡혀왔는지 몰라서 처음 며칠은 고생을 많이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잡혀왔고, 어떤 방향으로 조사하는지 알게 되었고 무엇을 어떻게 대답할 지를 정리할 수 있었다. 특히 이대나 연대 관련자가 없느냐 하는 것과 학내에서 누구하고

시위를 하려고 했느냐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학내에서 누구와 같이 시위하려고 했느냐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서 누군가를 얘기해야만 했다. 그렇다고 학내에서 이제 막 시작했던 비공개 모임을 공개할 수는 없었다. 그러면 정말 후배들 만이 아니라 그동안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전체가 피해를 볼 것이 명백했다. 그래서 그 당시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과 같이 하려고 했다고 그들의 이름을 댔다. 그들은 친하기는 하지만 학내 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고생은 하겠지만 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뒤에 들은 얘기지만 그 친구들이 한 달여 마포서에서 연행되어 고생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중 한 친구가 7년 전쯤 산행하다 저 세상으로 먼저 갔다. 정말 미안하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한 달여 조사를 받다 유치장으로 옮기면서 처음으로 공범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광화문시위 준비팀도 병합된 채로 같이 연행되어 있었다. 비로소 우리가 그들의 종범 비슷하게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거기서 3주 정도 더 보강수사를 받고 영등포 구치소로 이송되면서 검사와 대면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대한 기소가 정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 그런 후 저녁 늦게 영등포 구치소 1동 독방에 갇혔다. 우리가 온다고 독방에 있었던 누군가 다른 방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었다. 깔아놓은 이불에 온기가 가지지 않고 따듯했다. 0.7평의 좁은 방, 세로 한 3m, 가로 약 60여cm, 벽과 벽 사이로 앉아서 두 발을 뻗으면 완전히 뻗어지지 않았다. 화장실이 뒤에 붙어 있고, 높은 천장에는 백열전구 하나가 바를 비추고 있었다. 4m 가까이 되는 흰 벽에는 피를 빨은 모기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길게 뻗은 피 자국도 있었다. 가만히 누어 천장을 보니 죽으면 들어가는 관이 시신이 의식이 있어 기억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천국이었다. 조사만 받고 잠도 제대로 못자다 이렇게 이불 속에서 편안히 누워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참 사람이 이렇게 환경에 잘 적응해가는 동물이구나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움찔해졌다.

뒤에 우리는 무산된 6개교 연합시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각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성공한 경우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할 수 있으나 실패한 것은 자칫 누구를 비난하는 평가가 되기 쉽기 때문에 서로 평가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과 이야

기를 나눈 적이 없다. 그러다보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른다.

이번에 <뉴스메이커> 614호와 615호에 실린 기사를 보고 느낀 것이지만 그 당시 대학연합과 광화문시위가 겹치면서 수사기관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밝지 않았나 생각된다.

당시 시위를 성공시키려면 조직 동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결정하려 했는데 이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다. 정보기관이 학교 한복판까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조직 동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내부조직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므로 자연발생적으로 모이는 장소와 시간대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학교마다 요일마다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연합하여 일정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언제라도 조직 동원이 가능한 대학인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는 관악캠퍼스만 빼고 다른 대학은 그렇지 못했다.

대학 간 주체역량의 불균형은 다 같이 시위를 성공시킬 수 있는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대학마다 조직 동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각 대학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별 대학에서는 연합시위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대학에서 성공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 학생운동이 갖는 한계였다고 생각한다. 대학 간 주체역량의 불균형에서 생기는 대학연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연합을 성공시키는 것을 각각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관악의 경우, 자체 계획과 연관지어 자기들 계획의 일환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 당시 수사가 집중된 광화문시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특히 서울대의 주요관심은 광화문 시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래서 공소장에도 대학연합이 광화문시위팀의 중범 비슷하게 되어 있다). 대학연합도 광화문시위를 성공시키기 위한 사전포석 내지 분위기 띄우기의 일환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78년 가을에도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러 대학연합이 독자적으로 연합시위를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학연합의 대다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 그래서 연합시위는 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대학연합의 독자성과 관악의 자체논리와와 상호 괴리는 대학연합을 성공시키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그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과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

한국의 민주 와 긴조호 대

1970년 중반 이후 군사독재정권이 와해되고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까지 탄압이 가장 심했던 시기다. 이 시기에 이 땅의 민주화 투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세대가 바로 긴조호 세대이다. 물론 재야민주화운동세력이나 기층 민중운동이나 대중화된 학생운동세력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재야민주화운동세력에는 긴조호 세대가 주도적인 역할의 한축을 담당했고 기층 민중운동이나 대중화된 학생운동도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긴조호 세대역할이 결정적이다. 그러다보니 감옥도 많이 갔고 수배생활도 오래했다.

끝으로 긴급조치9호가 발동된 지 30년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왔으며 이 땅의 민주화에 어떤 역할을 했나 다시금 되새겨보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새롭게 생각하며 다짐해본다.

첫째,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물론 79년 부마사태 이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격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끊임없는 민주화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기간에 가장 치열하게 민주화투쟁에 앞장섰던 주역이 바로 긴조호 세대들이다. 다른 누구보다도 군사독재의 극악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한 결과,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그러한 저항에 부딪혀 군사독재정권의 핵심부가 균열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핵심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장에 게 군사 파쇼독재의 원흉이 죽임을 당한 것이다. 김재규의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차치하고 그런 결과를 일으키게 된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군부독재타도를 위해 앞장서서 끊임없이 투쟁한 긴조호 세대들임에는 분명하다.

둘째, 민주화운동을 보다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전시켰다.

70년대 중반 박정희 군사파쇼 독재정권 말기에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학생운동을 극심하게 탄압했다. 이러한 탄압을 뚫고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일 수 있게 되는 것은 단순히 정의감만 가지고는 어렵다. 정의감은 의로운 행동의 동기를 유발하게 하지만 장기간의 투쟁과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위에 우리가 왜 정의로운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왜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아

야만 한다. 그래야 주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고, 오랜 기간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당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역사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역사철학, 현실인식을 위한 철학과 사회과학 등을 공부한 것으로 생각한다. 현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성격규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현 단계에서 운동의 성격을 규정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답을 얻도록 하여 주체적인 자기 동인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했다. 나아가 앞만이 아니라 실천의 중요성과 그 실천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론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나 공부를 소수만이 아니라 모든 활동가들이 함께 했다. 더불어 시위를 효율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선전, 선동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했고, 실천을 통해 익히기도 했다. 초창기라 매우 초보자 수준이었지만 이러한 노력은 뒤에 기층 민중운동과 학생운동의 대중화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 투쟁 형태를 우리 실정에 맞게 많이 개발했다. 그 과정에서 어느 것이 우리 현실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함께 벌어졌다.

셋째, 변혁운동이 심화되었고, 이를 위해 학생운동 출신의 지식인 집단이 기층 민중운동으로 상당수 이전하기 시작했다.

민주화운동의 과학화와 조직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민주화의 대상인 한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성격을 갖고, 그 성격에 따라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떻게 변혁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80년대 중반 당시 민청련 의장이셨던 김근태 선배의 발제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수준에까지 운동의 질이 높아졌음을 반영한다. 나아가 고전적 방식을 사용하여 각각의 주장에는 차별성을 있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위협을 무릅쓰고 그런 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현실 인식과 주체세력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주체세력의 동력을 어떻게 끌어들이야 하는가에 대해 운동권 내에서 각각 다르게 주장하는 집단들의 차이와 구별을 분명히 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한계와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밝혀 앞으로의 한국사회에 대한 변혁운동의 방향을 바로 잡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이후로 이에 대한 논쟁은 대단히 활성화되었고, 진보사회과학계의 주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논쟁을 통하여 민주화운동 세력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과학계도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수준이 획기적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사회에 대한 현실인식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학생운동세력이 학교를 떠나서 변혁운동의 주도세력인 기층민중으로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완전히 이전하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시도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목도한 일부 각성된 학생운동 선배들부터 시작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리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그 이후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거치면서 긴조9호 세대 후반부터 활성화되어 80년 초반 학번들부터는 이러한 경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어느 방향으로 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수준이 높아졌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과학화가 더욱 치밀하게 연구되었으며, 나아가 변혁운동의 주도세력이 되는 기층 민중운동의 활성화에도 대단히 기여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노동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등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이를 주도한 세력이 바로 긴조9호 세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인식의 차이와 실천 방안에 대한 통일을 위한 논쟁은 이후 주사와 비주사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이 논쟁은 한국이 통일을 이룰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아직은 결론내리기 어렵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전통이 갖는 가치와 변화된 사회에서 구체적인 현실적 고된 위에서 자생해 형성된 가치를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들의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세력들을 어떻게 적절히 통일시킬 것인가? 등은 앞으로 우리나라 변혁운동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이러한 융합과 통일을 바르게 이루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변혁운동은 내·외부적으로 발생하는 분파성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넷째, 양적, 지역적 확대는 엄청났지만 운동의 상황적 문제로 상호간의 관계가 긴밀하지 못했다. 현재도 그렇게 많은 긴조9호 세대들이 여전히 분절적이고 상호 고립되어 있다.

긴조9호 하에서의 민주화 투쟁도 보안유지를 위해 지극히 한정된 동료나 선후배들과 속의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각각 분절적으로 행해졌다. 더구나 1978년 이후로는 지역적으로 수도권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구속자 수가 양적으로 엄청나게 불